

고령층 노동시장 추이

남재량*

I. 서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곳곳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변화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경제, 사회, 정치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여러 변화와 문제점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노동시장과 직결되어 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로 대표되는 고령화 문제는 고령층의 노동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노동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증대된 노동공급은 고령자 빈곤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또 다시 많은 추가적인 문제들을 파생시키게 된다.

50세 이상 연령층이 노동시장을 주도하는 계층으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이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50대가 되기 시작한 2005년경부터 이들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5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자영업이 포화인 상태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고령층 고용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고령층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밝히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5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과 임금 등을 중심으로 주요한 특징들을 찾아 정리하고자 한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도 살펴볼 것이다.

50세 이상 연령층을 고령층이라 부르기가 다소 망설여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mam@kli.re.kr).

다른 이름도 그리 마땅치 않다. 일부에서는 50~64세를 준고령자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본고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Ⅱ. 고령층 고용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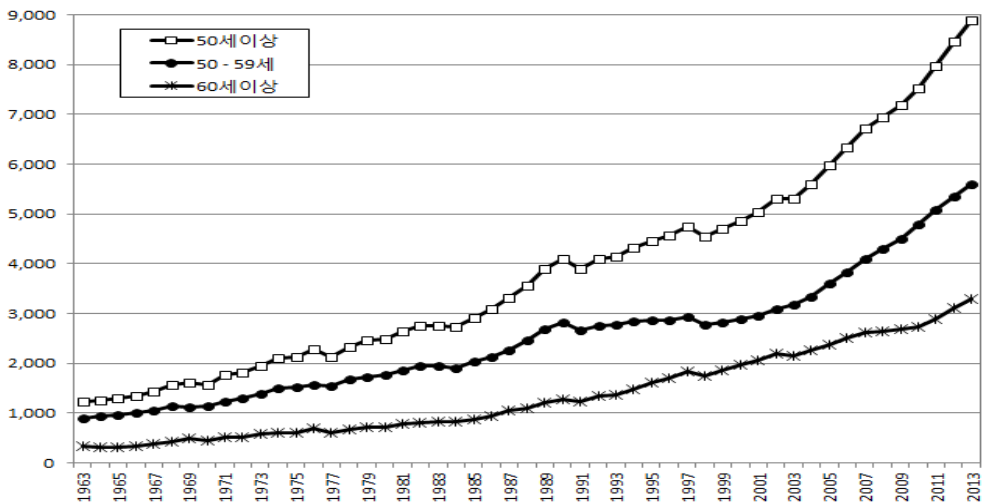
1. 고용 현황

먼저 고령층의 고용 현황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와 특징을 파악한 후 이를 염두에 두고 단기적인 변동을 분석하면 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5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외환위기를 비롯한 몇몇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1963년 100만 명 남짓한 수준에서 2013년 9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연령을 보다 세분하여 보면 이 시기에 50대 취업자 증가가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대 취업자는 200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에서 5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그림 1] 고령층 취업자 수의 장기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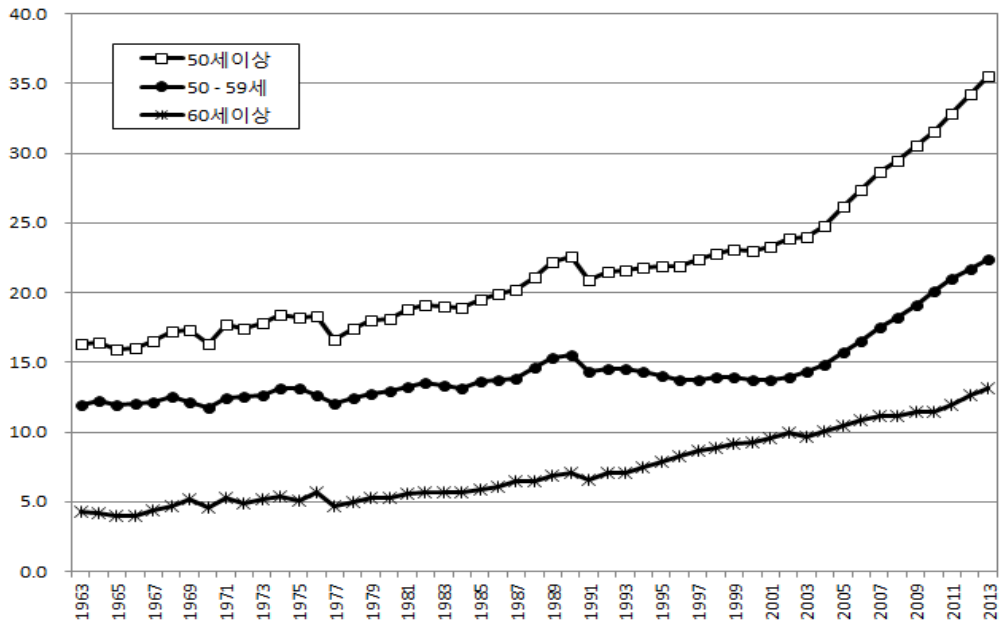


200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은 2005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50대 취업자 비율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은 분석기간 전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50대 취업자가 2000년대 중반 들면서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베이비부머가 처음으로 50세가 된 시점이 2005년이었던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보듯이 2005년부터 50대 연령층 취업자 수가 이전과 달리 2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았던 2009년에 198천 명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50대 취업자 증가폭은 2005년 이후 모두 20만 명을 넘는다. 각 연령층의 고용변화가 전체 취업자 수 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더라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세 이상에서 2005년 이후 모두 절대값으로 100%를 넘는다.¹⁾ 타 연령 집단들의 고용감소²⁾를 50세 이상 연령집단이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2] 고령층 취업자 비율 장기 추이

(단위: %)



1) 2009년에 이 값이 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체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 이는 주로 해당 연령층의 인구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표 1〉 연령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 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0세 이상
2001	416	-31	-33	30	284	60	108	168
2002	597	-45	29	45	295	139	133	272
2003	-30	-41	-152	-26	175	76	-62	14
2004	418	-14	-14	-5	175	160	115	275
2005	299	-15	-113	-59	99	265	124	389
2006	295	-34	-146	14	102	236	122	358
2007	282	2	-69	-101	77	258	115	373
2008	144	-21	-98	-25	64	207	18	225
2009	-71	-12	-115	-173	-24	198	54	252
2010	323	26	-69	-4	29	294	47	341
2011	415	23	-58	-47	58	291	149	440
2012	437	4	-40	-30	11	270	222	492
2013	385	-7	-43	-21	22	253	181	434

〈표 2〉 연령별 취업자 증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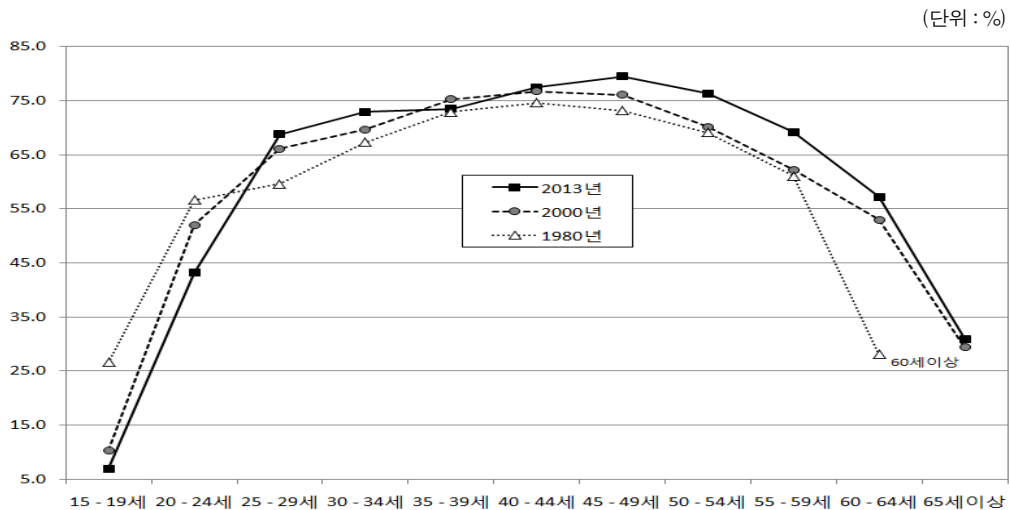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0세 이상
2001	-7.5	-7.9	7.2	68.3	14.4	26.0	40.4
2002	-7.5	4.9	7.5	49.4	23.3	22.3	45.6
2003	136.7	506.7	86.7	-583.3	-253.3	206.7	-46.7
2004	-3.3	-3.3	-1.2	41.9	38.3	27.5	65.8
2005	-5.0	-37.8	-19.7	33.1	88.6	41.5	130.1
2006	-11.5	-49.5	4.7	34.6	80.0	41.4	121.4
2007	0.7	-24.5	-35.8	27.3	91.5	40.8	132.3
2008	-14.6	-68.1	-17.4	44.4	143.8	12.5	156.3
2009	16.9	162.0	243.7	33.8	-278.9	-76.1	-354.9
2010	8.0	-21.4	-1.2	9.0	91.0	14.6	105.6
2011	5.5	-14.0	-11.3	14.0	70.1	35.9	106.0
2012	0.9	-9.2	-6.9	2.5	61.8	50.8	112.6
2013	-1.8	-11.2	-5.5	5.7	65.7	47.0	112.7

50세 이상 연령층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과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연령층도 있다. 이 경우 취업자 수의 감소는 주로 해당 연령층의 인구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취업자 수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취업자 수를 인구 수로 나눈 고용률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현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고령층의 고용률을 다른 연령집단들의 고용률과 비교하여 보자. [그림 3]은 이를 위해 그린 것인데, 연령집단별 고용률의 시기별 변화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2013년에 45~49세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고 대체로 이 연령대에서 멀어질수록 고용률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24세 이하 연령집단의 고용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고 있으나, 나머지 연령층은 대체로 시간 경과에 따라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다.³⁾

50대 고용률은 50~54세의 경우나 55~59세의 경우 모두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단지 미약한 정도로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50대 고용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2000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50대 고용률 증가폭이 6.6%포인트로 매우 크며, 50~64세 고용률로 보더라도 6.8%포인트나 증가하였다. 30~40대 고용률은 이 기간 동안 1.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청년층인 15~29세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⁴⁾

[그림 3] 연령계층별 고용률 및 변화



3) 35~39세 고용률은 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

4) 고령층 고용률 상승은 고령화에 따른 연령상승 효과, 즉 연령구성 변화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세대(cohort), 예컨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이동함에 따른 효과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 연령별 고용률 및 증감

(단위 : %)

	전 체	15~29세	30~49세	50~59세	60세 이상	50세 이상	50~64세	60~64세
2000	58.5	43.4	74.3	66.5	37.7	50.8	62.5	53.0
2001	59.0	44.0	74.5	66.8	38.0	50.9	62.9	53.7
2002	60.0	45.1	75.1	68.2	38.7	51.8	64.3	55.0
2003	59.3	44.4	74.7	67.6	36.2	50.1	63.0	51.9
2004	59.8	45.1	74.9	67.8	36.9	50.7	63.6	52.7
2005	59.7	44.9	74.7	68.1	36.9	50.9	64.2	53.4
2006	59.7	43.4	75.4	68.5	37.4	51.6	64.9	54.5
2007	59.8	42.6	75.6	69.7	38.1	52.6	66.0	55.0
2008	59.5	41.6	75.6	70.6	37.2	52.6	66.4	54.1
2009	58.6	40.5	74.5	70.3	36.7	52.4	66.2	53.8
2010	58.7	40.3	75.0	71.0	36.0	52.4	66.7	53.7
2011	59.1	40.5	75.4	71.6	36.5	53.1	67.6	55.1
2012	59.4	40.4	75.6	72.2	37.5	53.9	68.3	56.1
2013	59.5	39.7	75.9	73.1	38.4	54.8	69.3	57.2
증감	1.1	-3.7	1.7	6.6	0.7	4.0	6.8	4.2

이제 보다 장기간에 걸친 고령층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4]는 이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시기별로 고용률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고령층의 세부 연령 집단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경제전체 고용률을 살펴보자. 1960~70년대 동안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인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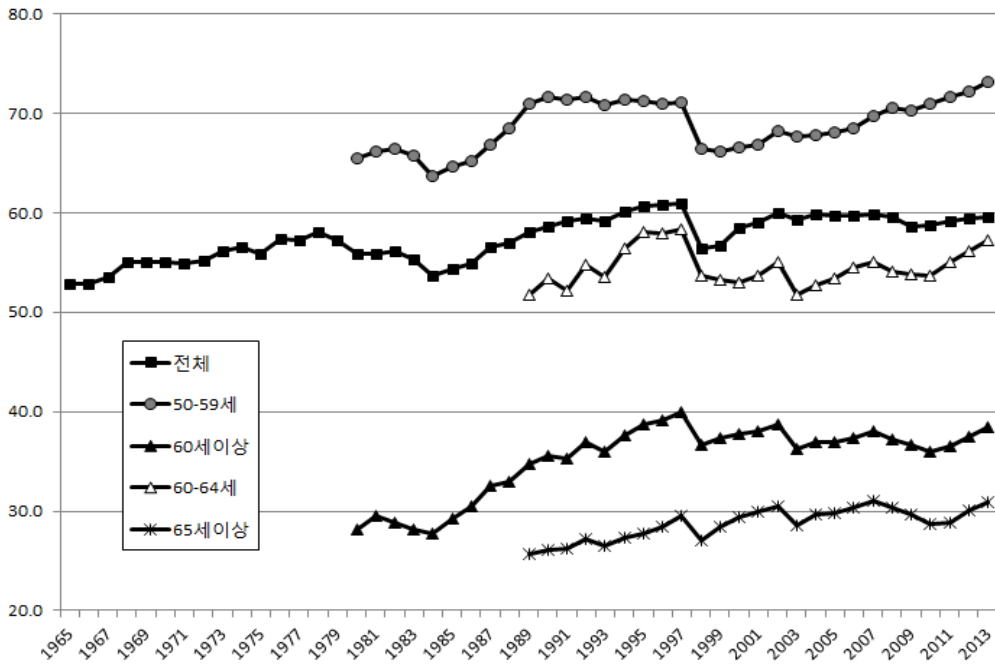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경제전체 고용률 상승에 기여한 연령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전체 고용률 상승은 50대와 60대의 고용률 상승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90년대 상반기 동안의 경제전체 고용률 상승은 50대 고용률이 70% 이상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60세 이상, 특히 60~64세의 고용률 상승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정체되어 있던 50대 고용률은 외환위기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도 50대의 고용률 상승은 두드러진다. 50대의 2013년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최근 2~3년 동안 60세 이상의 고용률 상승도 괄목할 만하다.⁵⁾

5) 고령층의 이러한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전체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은 주로 청년층, 특히 20~24세 연령층의 고용률 하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남재량, 2013).

〔그림 4〕 고용률 추이(고령층을 중심으로)

(단위: %)



2. 근로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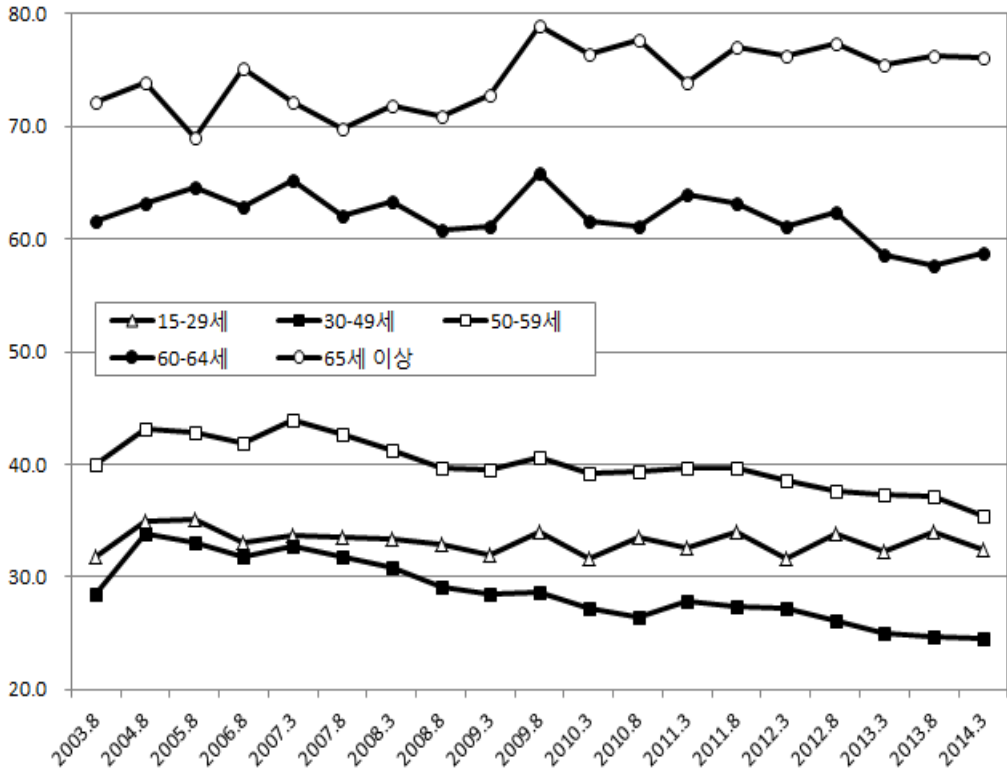
이제까지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질적인 측면에 대해 알아보자.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적인 차이가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다양한 근로형태를 조사하므로 이로부터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는 연령집단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50세 이상 연령층 내에서도 5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5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초기에 40%를 크게 웃돌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40% 아래에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15~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다. 30~40대 비정규직 비율은 30% 아래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50대의 경우와 10%포인트 전후의 격차를 보인다.

반면 60~64세 비정규직 비율은 60%를 넘고 있어서 50대의 경우와 큰 격차를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60~64세 연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60% 아래

(그림 5)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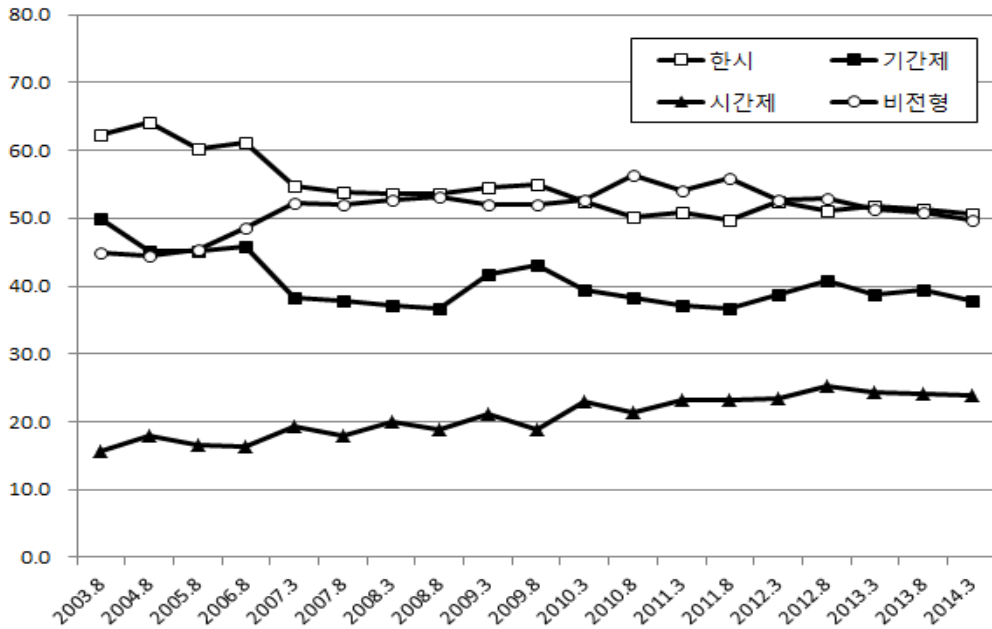
로 떨어진 상태이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70%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더욱 상승하여 80%에 육박할 정도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소 하락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세부 근로형태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자. [그림 6]부터 [그림 8]은 50세 이상 연령집단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가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린 것이다. 무엇보다도 50대와 60~64세에서 비전형 근로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40%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30~40대의 경우(부도 2)와 구분된다.⁶⁾

6) 15-29세 청년층에서 비전형 근로의 비중은 20%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부도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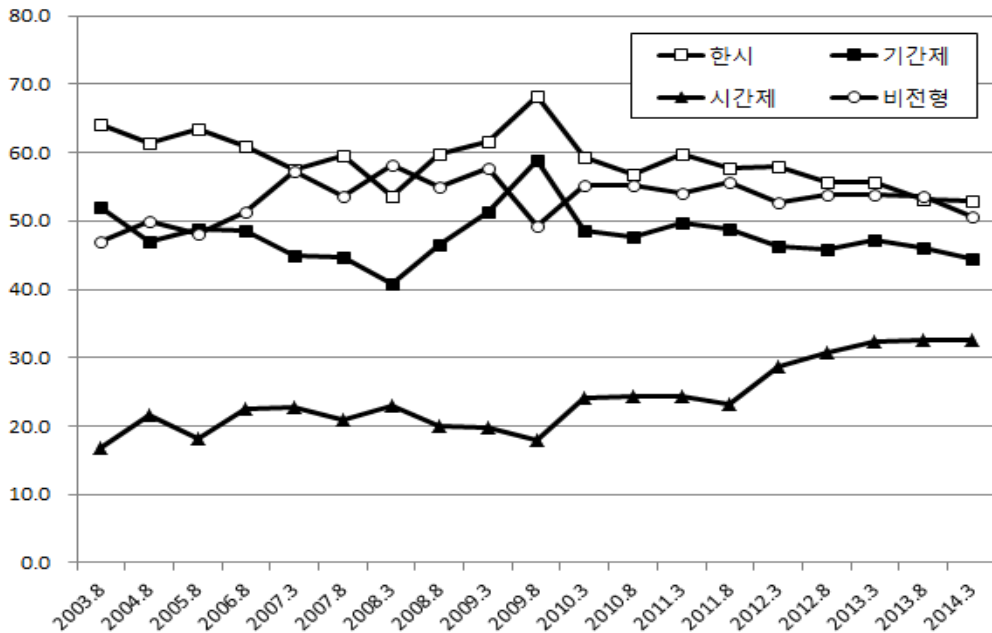
[그림 6] 비정규직 근로형태(50~59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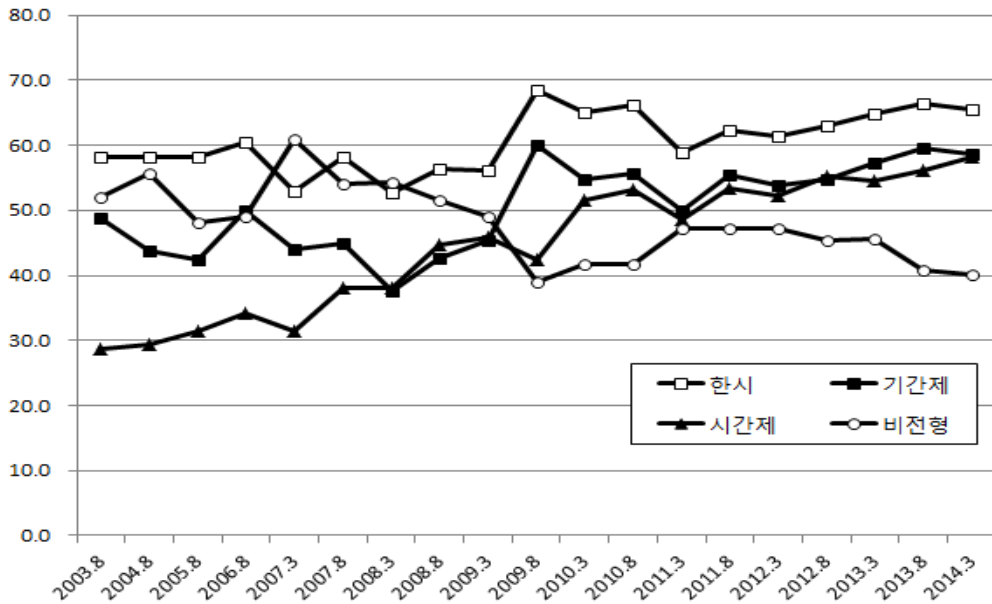
[그림 7] 비정규직 근로형태(60~64세)

(단위: %)



[그림 8] 비정규직 근로형태(65세 이상)

(단위: %)



그리고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높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50대 연령층의 시간제 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30~40대의 시간제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반면 60~64세의 시간제 비중은 20%에서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65세 이상에서 시간제 비중은 3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60%에 근접한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Ⅲ. 고령층의 임금수준과 변화

1. 임금 동향

이제 50세 이상 연령층의 임금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50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2014년 3월에 240.8만 원으로 30~40대 256.2만 원의 94% 정도 수준이었다. 2003년 8월에 50대 임금은 153.1만 원으로 30~40대 169.0만 원의 90% 수준이었다. 대체로 분석기간 동안 50대는 30~40대 월평균 임금의 90~94% 수준에서 등락하고

〈표 4〉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전 체	15~29세	3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3. 8	146.6	112.8	169.0	153.1	96.6	60.8
2004. 8	154.2	119.6	176.2	164.0	99.1	68.2
2005. 8	159.3	123.3	182.1	165.1	107.7	72.8
2006. 8	165.6	128.3	187.9	174.2	115.4	71.9
2007. 3	172.4	135.2	194.2	183.0	116.7	80.1
2007. 8	174.5	133.5	198.5	185.8	121.3	78.8
2008. 3	181.1	140.5	204.2	192.4	121.9	76.7
2008. 8	184.6	142.1	209.0	195.1	124.7	78.8
2009. 3	185.4	144.0	209.3	194.4	123.1	78.2
2009. 8	185.2	139.5	211.2	200.1	122.0	75.1
2010. 3	194.6	146.3	221.6	204.0	139.4	76.2
2010. 8	194.9	145.4	222.4	205.8	144.7	77.4
2011. 3	202.6	150.5	231.6	209.5	149.1	80.6
2011. 8	203.2	149.8	233.9	211.4	152.2	82.1
2012. 3	211.3	155.9	243.0	219.8	149.0	87.2
2012. 8	210.4	153.5	243.0	221.8	141.8	87.6
2013. 3	217.1	159.9	250.3	227.7	139.9	89.7
2013. 8	218.1	158.1	250.4	234.8	152.4	90.1
2014. 3	223.4	164.0	256.2	240.8	158.1	89.3

있다. 반면 60~64세 연령층의 월평균 임금은 2014년 3월에 158.1만 원으로 30~40대의 60% 남짓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연령층은 89.3만 원으로 더욱 낮아 30~40대의 경우에 비해 35% 수준에 불과하였다.

반면 50대와 60~64세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30~40대의 경우보다 더 높다. <표 5>에서 보듯이 50대의 근로시간은 주당 43.1시간으로서 30~40대의 42.2시간보다 더 길다. 이러한 현상은 분석기간 전체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60~64세의 경우도 2014년 3월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에서 30~40대보다 근로시간이 더 길다. 다만 65세 이상의 근로시간은 30~40대에 미치지 못한다.

50대와 60~64세의 월평균 임금은 30~40대의 경우보다 낮으나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길므로 시간당 임금은 낮게 나타난다. <표 6>에서 보듯이 2014년 3월 50대의 시간당 임금은 13,289원으로서 30~40대의 14,284원의 93% 수준이다. 30~40대의 경우에 비해 60~64세 연령층의 시간당 임금은 63%이며, 65세 이상 연령층은 43%에 불과하여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표 5〉 근로시간

(단위 : 시간/주)

	전 체	15~29세	3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3. 8	48.5	48.1	48.4	49.6	50.5	47.8
2004. 8	47.8	47.7	47.7	48.6	49.4	46.6
2005. 8	47.5	47.3	47.4	48.1	50.2	46.0
2006. 8	46.6	46.2	46.6	47.7	48.5	43.9
2007. 3	45.9	45.4	46.0	46.6	47.5	44.7
2007. 8	45.9	45.0	46.2	47.0	47.7	43.0
2008. 3	45.3	44.2	45.6	46.0	47.6	42.5
2008. 8	45.1	44.1	45.4	46.2	47.0	41.1
2009. 3	44.4	43.6	44.5	45.3	47.2	39.7
2009. 8	43.9	43.4	44.1	44.9	45.9	38.0
2010. 3	43.6	42.9	43.9	44.6	45.5	37.3
2010. 8	43.4	42.6	43.8	44.6	44.2	36.4
2011. 3	43.1	41.9	43.5	44.1	44.4	37.6
2011. 8	42.7	41.7	43.1	44.0	43.9	35.8
2012. 3	42.4	41.3	42.7	43.6	44.1	36.5
2012. 8	42.0	40.8	42.5	43.4	43.5	35.2
2013. 3	41.8	40.6	42.2	43.2	42.5	35.6
2013. 8	41.7	40.6	42.2	43.1	42.6	34.5
2014. 3	41.7	40.6	42.2	43.1	42.0	33.7

〈표 6〉 시간당 임금

(단위 : 원)

	전 체	15~29세	3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3. 8	7,289	5,652	8,365	7,595	4,860	3,367
2004. 8	7,796	6,047	8,885	8,329	5,020	3,702
2005. 8	8,152	6,264	9,316	8,465	5,554	4,118
2006. 8	8,573	6,632	9,704	8,982	6,067	4,428
2007. 3	9,038	7,055	10,193	9,549	6,092	4,492
2007. 8	9,121	7,044	10,323	9,647	6,450	4,603
2008. 3	9,566	7,466	10,749	10,150	6,351	4,558
2008. 8	9,799	7,620	11,046	10,282	6,469	4,917
2009. 3	9,952	7,795	11,193	10,328	6,397	5,057
2009. 8	10,026	7,555	11,388	10,761	6,488	5,070
2010. 3	10,578	8,004	11,986	10,989	7,513	5,212
2010. 8	10,611	7,979	12,049	11,054	8,029	5,270
2011. 3	11,113	8,401	12,627	11,345	8,181	5,459
2011. 8	11,222	8,413	12,845	11,464	8,287	5,778
2012. 3	11,748	8,773	13,470	12,024	8,185	5,756
2012. 8	11,726	8,719	13,481	12,158	7,754	5,835
2013. 3	12,143	9,099	13,927	12,564	7,839	5,970
2013. 8	12,222	9,001	13,934	12,969	8,767	6,111
2014. 3	12,536	9,329	14,284	13,289	9,041	6,230

2. 근로형태별 임금

이제 임금을 근로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부표 1>과 <부표 2>는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보여준다. 먼저 정규직의 경우를 살펴보면, 50대 연령층의 월평균 임금이 30~40대 연령층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 2014년 3월의 경우 전자의 임금은 288.0만 원인 반면, 후자의 임금은 281.3만 원에 그쳐 50대의 임금이 2.5%가량 더 높다. 50대 정규직이 30~40대 정규직보다 월평균 임금이 더 높은 현상은 분석기간 전체에서 마찬가지이다. 다만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60~64세와 65세 이상의 월평균 임금은 30~40대의 임금이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규직의 경우와 달리 비정규직의 경우 50대의 월평균 임금은 30~40대의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 <부표 2>에서 보듯이 2014년 3월에 50대 비정규직의 임금은 154.6만 원으로서 30~40대의 179.1만 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분석기간 전체에서 마찬가지이다. 60~64세와 65세 이상 연령층의 임금은 30~40대의 경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 역시 분석기간 전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50세 이상 연령층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적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최근의 변화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50세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져 왔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처음으로 50세가 되었던 2005년부터 50세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및 취업자 비율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전체 취업자 증가의 거의 대부분을 이 연령층이 담당하고 있다.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는 이 연령층의 인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50세 이상의 고용률 증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미미한 정도에 그쳤으나 2000년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급격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용률 증가에 대한 50세 이상 세부 연령층의 기여는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50대의 고용률도 외환위기 발생 이전 1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근로형태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5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자의 경우는 전

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40% 아래에서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 반면 60~64세와 65세 이상 연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60%와 75%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적어도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50대와 60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인 비정규근로 형태별로 보면, 50대와 60대에서 비전형 근로의 비중이 30~40대의 경우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은 50%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30%에서 60% 수준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임금으로 보더라도 50대는 30~40대에 가까웠다. 50대의 월평균 임금은 30~40대의 90% 이상이었으나, 60대의 월평균 임금은 30~40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50대와 60~64세의 근로시간은 30~40대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을 근로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50대의 월평균 임금이 30~40대보다 더 높았다. 물론 60대의 경우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30~40대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50대이더라도 30~40대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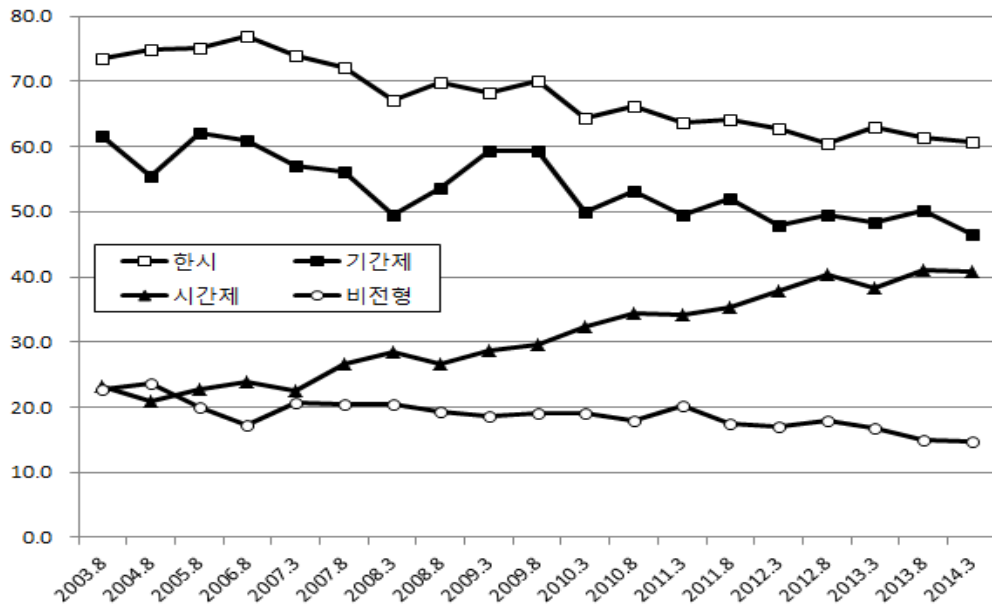
이러한 여러 특징들은 50세 이상 연령층의 노동시장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추가된다면 보다 유익하고 세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고령화의 효과 가운데 세대효과(cohort effect)를 분해하고 그 크기를 실증적으로 평가한다면 기존의 접근법과 다른 측면에서 미래에 대해 새로운 전망을 할 수도 있다. 고령층의 임금 결정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추정함으로써 이들의 임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층의 근로빈곤이나 노인빈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빈곤 탈출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향후의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KLI**

<참고문헌>

남재량(2013), 『최근 고용률 정체와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매월 고용동향 분석』 창간호, 한국노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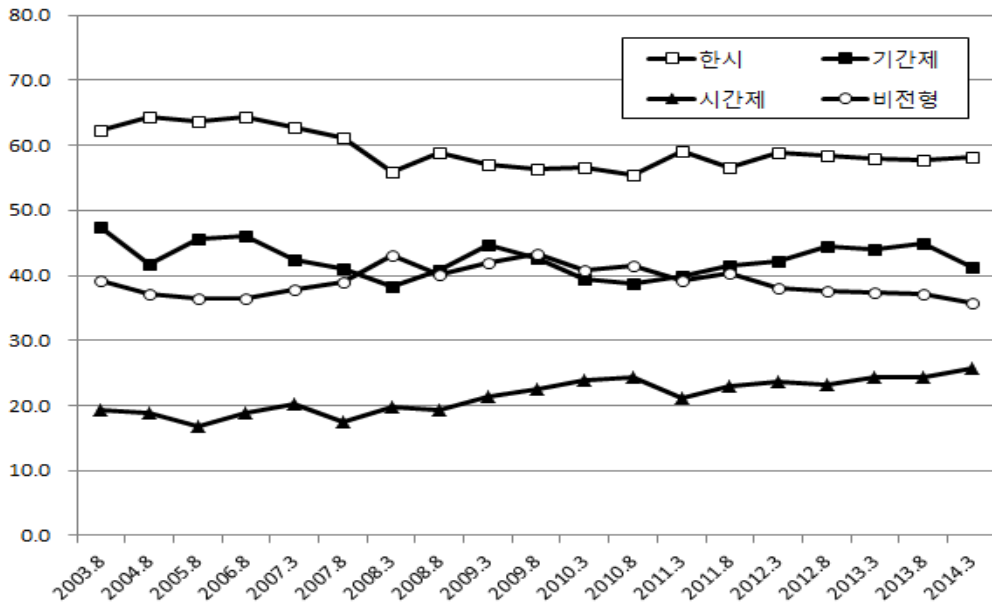
[부도 1] 비정규직 근로형태(15~29세)

(단위 : %)



[부도 2] 비정규직 근로형태(30~49세)

(단위 : %)



〈부표 1〉 정규직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전 체	15~29세	3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3. 8	167.8	123.4	188.3	192.2	96.6	60.8
2004. 8	177.1	128.8	198.5	207.7	99.1	68.2
2005. 8	184.6	134.4	205.4	212.4	107.7	72.8
2006. 8	190.8	140.1	209.9	220.3	115.4	71.9
2007. 3	198.5	143.6	217.4	236.9	116.7	80.1
2007. 8	200.8	145.4	220.6	236.7	121.3	78.8
2008. 3	210.4	154.2	229.2	244.7	121.9	76.7
2008. 8	212.7	155.0	232.5	244.3	124.7	78.8
2009. 3	216.7	158.1	235.2	247.4	123.1	78.2
2009. 8	220.1	156.1	238.7	256.6	122.0	75.1
2010. 3	228.9	162.2	248.7	258.2	139.4	76.2
2010. 8	229.4	162.6	248.2	257.7	144.7	77.4
2011. 3	236.8	166.4	257.9	261.9	149.1	80.6
2011. 8	238.8	168.4	259.8	263.4	152.2	82.1
2012. 3	245.4	172.5	268.4	268.8	149.0	87.2
2012. 8	246.0	175.2	267.5	269.4	141.8	87.6
2013. 3	253.3	180.2	275.6	277.5	139.9	89.7
2013. 8	254.6	181.0	274.6	284.1	152.4	90.1
2014. 3	260.1	184.5	281.3	288.0	158.1	89.3

〈부표 2〉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전 체	15~29세	3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3. 8	102.8	90.0	120.5	94.3	79.2	50.4
2004. 8	115.2	102.3	132.5	106.5	81.6	60.4
2005. 8	115.6	102.6	135.0	101.9	82.1	60.8
2006. 8	119.8	104.5	140.7	110.1	86.7	60.9
2007. 3	127.3	118.7	146.3	114.2	94.2	68.5
2007. 8	127.6	109.8	151.1	117.4	95.1	64.3
2008. 3	127.2	113.1	148.1	117.9	98.4	64.2
2008. 8	129.6	115.8	151.6	120.0	103.5	64.5
2009. 3	123.2	113.9	143.9	113.2	94.1	62.5
2009. 8	120.2	107.3	142.4	117.6	93.0	62.7
2010. 3	125.3	112.0	149.3	119.8	98.3	59.0
2010. 8	125.8	111.2	150.8	125.8	99.8	59.0
2011. 3	135.6	117.6	163.4	129.8	107.4	62.2
2011. 8	134.8	113.9	165.1	132.2	115.4	60.5
2012. 3	143.2	119.9	174.8	141.8	111.6	67.3
2012. 8	139.3	111.0	173.5	142.7	111.6	68.6
2013. 3	141.2	117.4	174.3	144.0	110.9	68.3
2013. 8	142.8	113.8	176.5	151.3	121.3	69.5
2014. 3	145.9	121.3	179.1	154.6	125.2	68.5